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제3회 컴세미나(COME Seminar)
충현해외목회자교육세미나 개최
인도네시아 목회자 30여명 초청,
9월 28일~10월 6일(9일간)

교회는 제3회 충현해외목회자교육세미나(Choong-hyun Overseas Ministers Education Seminar)를 오는 9월 28일(수)~10월 6일(목)까지 9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90년 11월에 동구권 7개국 목회자 27명이 참가함으로써 처음 열린 해외목회자 교육세미나는 91년 5월에는 중국어권 교역자를 초청하여 실시했다. 세번째로 열리는 금년 충현해외목회자교육세미나는 인도네시아 목회자를 대상으로 열리게 된다.

교회는 외국의 사명감을 가진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한국교회의 부흥된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교회 부흥의 방법을 소개하고 그들이 몸소 느끼도록 함으로 도전과 자극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충현해외목회자교육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다.

초청대상자는 인도네시아 주재 서만수 선교사가 추천한 현지 목회자 30명으로 기간중 비용은 교회가 전체를 부담하고 항공료는 초청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9일간 진행될 세미나는 교회부흥과 설립, 전도에 관한 특강외에 교구 구역예배, 참관, 가정심방, 교회 및 신학교 탐방, 판문점 관광, 충현기도원에서 산상기도, 분임토의, 복음화를 위한 전략회의 등의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특강은 김창인 원로목사의 '충현교회와 교회성장',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교회성장학', 할렐루야 교회 협동목사인 킨슬러 목사의 '한국복음전도의 뿌리', 제자교회 담임목사인 정삼지 목사의 '평신도 지도자 훈련'과 OMF선교사인 로저 시니어 목사의 '60, 70년대 한국교회 부흥과 전망', 인도네시아 선교사인 김병선 선교사의 '효과적인 복음전도', 동산교회 김인중 담임목사의 '교회설립과 전도' 등이 기간중 오전중에 있게 된다.

이 세미나를 위한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준비위원장/ 강순용 장로(교훈원 부원장)
- 지도 - 김광국 목사(교훈원 지도)
- 기획 - 분과장/ 이종석, 지도/ 김광국, 위원/ 우기전 노광원 하대선 윤명식
- 진행 - 분과장/ 하대선, 지도/ 김영대, 위원/ 김방진 송환장 박용삼 이중국
- 홍보 - 분과장/ 조선근, 지도/ 조동원, 위원/ 이병학 손경수
- 행정 - 분과장/ 김차생, 지도/ 장우천, 위원/ 이태규 오진국
- 의료 - 분과장/ 조인재, 지도/ 이홍성, 위원/ 이종석
- 봉사 - 분과장/ 김재명, 지도/ 김양홍, 위원/ 마성락 최상규 이하영 박인건
- 재정 - 분과장/ 김영개, 위원/ 김광남

길림성기독교신학원
후원이사회 발기인 총회

첫번째 모임은 지난 8월 30일 정오에 선교관 301호에서 개졌다. 이날 모인 이사회는 발기인대표인 신성종 목사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경전학을 인도했다. 곧 이어 가진 회의에서 최연장자인 지원장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진행됐다.

발기인대표인 신성종 목사가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한 후 길림성기독교신학원 후원이사회 정관 설의를 원안대로 받기로 하고 곧 이사장 선출에 들어가 신성종 목사를 만장일치로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신임 이사장 신성종 목사는 사무국장인 윤명식 장로(충현교회 기획실장)를 임명하였다.

이제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은 우리 교회의 일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되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실무적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기에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며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초대 길림성기독교신학원 후원이사회는 다음과 같다.

- 신성종(이사장, 충현교회 담임목사)
- 고영민(성도교회 담임목사)
- 김자연(용성교회 담임목사)
- 김동익(새문안교회 담임목사)
- 김동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 김삼환(봉성교회 담임목사)
- 김선도(광림교회 담임목사)
- 김장환(수원중앙교회 담임목사)
- 김해철(기독교 한국루터교 총회장)
- 박봉상(이원생결교회 담임목사)
- 옥한흠(사광교회 담임목사)
- 이충표(한신교회 담임목사)
- 장자천(인천생결교회 담임목사)
- 정필도(수영로교회 담임목사)
- 지원상(베델성서연구원장)
- 최건호(종무교회 담임목사)
- 최병남(대전중앙교회 담임목사)
- 최성규(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 홍정길(남서울교회 담임목사)

오늘 교회설립 41주년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주일이다. 1953년 9월 첫주가 설립주일이다.

이날을 기념하여 제복 찬양예배시 교회설립41주년 기념음악예배를 드린다. 임마누엘찬양대가 연주할 곡은 안토니오 비발디의 「시편 112편-복 있도다」.

저녁에 최덕식, 반주에 김용경.

'94 예수사랑 큰잔치

10월 11일-15일,
태신자 대상으로 초청전도집회

'94 예수사랑 큰잔치가 예년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된다.

1. 초청전도집회 : 10월 11-15일

·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의 특징은 초청전도집회이다. 잔치 당일에는 모든 태신자들 다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주간에(10월 11-15일) 초청전도집회를 실시한다. 초청집회에는 간증과 특별찬양이 있다. 초청집회 강사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 이 시간에 작정된 태신자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희망자는 등록을 받도록 한다. 주간에 초청전도집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2. 10월 16일(주일) - 행사 당일

- 1) 새벽기도회 : 이날은 오전 5시에 행한잔 모인다.
- 2) 주일예배 : I - IV부까지는 행행대로 드리고 제복찬양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없는 태신자는 이 시간에 함께 참석하도록 한다.
- 3) 찬양예배(새가족 환영을 위한 잔치) : 행행대로 오후 5시에 드리고 모든 태신자들 데리고 와서 함께 참석하도록 한다. 선물도 준비하고 있다.
- 4) 교회학교 : 자체 계획에 따라 교회학교, 발로 실시되고 교사와 학생들이 찬양예배 준비에 자량이 없도록 한다.
- 5) 교구모임 : 이날은 교구모임을 갖지 못한다. 예배 후 집에 들어가 태신자를 데리고 저녁 찬양예배시에 참석한다.

서머나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라고 할 때 '머(myrrh)'라는 말은 유향이라는 말인데 이름 그대로 서머나교회는 유향과 같이 향내가 나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서머나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주후 155년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는 이 교회를 지키다가 여든 여섯살에 순교했습니다. 폴리갑은 예수를 모른다고 한 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회유를 받으면서도 "내가 팔십 육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단 한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하고 거절했고 마침내 화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서머나교회는 폴리갑 같은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이름 그대로 향내가 나는 교회였습니다.

1. 서머나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8절에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반드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다릅니다. 주님이 책망을 하실 때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위로할 때는 부모와 같은 어진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시종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그것을 다 보상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서머나교회에는 고통을 당하며 순교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라고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2. 서머나교회의 형편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책망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고 서머나교회의 형편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서머나교회에 임했던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지금 북한 같은 곳에서 당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들은 정원을 밭히는 등불로, 때로는 이른바 Man hunting 사냥감으로 사냥개를 풀어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끓는 물을 붓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양쪽 안구를 뽑기도 하는 등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추악한 일들을 다 했습니다. 이런 환난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핍박을 받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오해가 많았습니다. 이들의 성만찬은 식인종으로 오해를 받았고 네로 황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불탄 나뭇기독교인들의 것이라고 방화범으로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황제숭배를 하고 있는 때인데 기독교인들만 절을 안하니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매우 궁핍한 가운데 제였습니다. 여기 '궁핍'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대적인 빈곤에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물질적으로 궁핍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서머나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지냈지만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가난한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그들은 윤택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재산입니다. 영생, 믿음을 이 모든 우리의 예수 소중환 영적인 재산입니다. 서머나교회 교인들에 왜 실상은 부요한 자인가 하면 그들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때문이고, 해

늘에서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고, 전도해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두었고, 참 부자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신자들의 특징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책망도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사탄들의 책동이 있었고, 책망이 많이 있었습니

충헌강단



서머나교회에 보내는 편지

(계 2:8-11)



신 성 중

<목사, 담회장>

다 기독교인들의 원수는 변 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네 원수가 바로 네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마귀도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할 때 변 데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3. 서머나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부탁

첫째로 장차 받을 고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고난입니까? "따위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제 기독교인들은 황제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반민족, 반국가 단체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도한다고 후배무민(後世國民)하는 사교단체라고 모함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 대려 경고한 이유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는 두려워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금을 풀무 속에 넣어서 정금으로 단련을 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세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불탄과 공포 속에

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있겠지만 10일동안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10일 동안 채식을 먹는 시험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루를 일년으로 계산해서 10년 동안, 다시 말해서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혹독한 정치 10년 동안을 뜻한다고 계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기독교를 박했던 황제의 수가 10명인데 이 10명의 왕들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0이라는 말은 완전수,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긴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열흘이라 아주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것이 비록 하루, 한 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지루하고 힘든 기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 안에서 본다면 그것은 열흘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 환난, 핍박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넷째로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요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불사이교(不事二君)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딘다는 뜻입니다. 죽음에 이를지라도 계속해서 주님께 대한 충성심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4.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첫째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아테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왕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쓰인 면류관의 원문은 스테파노스인데 이 면류관은 승리가 쓰는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차 받을 면류관은 왕으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승리라로서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면류관의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금 면류관(제 4:4), 의의 면류관(딤후 4:8),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살전 2:19), 영광의 면류관(벧전 5:4), 영화로운 면류관(창 4:9), 썩지 아니할 면류관(고전 9:25), 그리고 본문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런 많은 면류관은 전부 다 승리가 쓰는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충헌교회라는 이름 그대로 저 갈보리 언덕에 갈 때까지 정말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죽음에는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 육체적인 죽음에 있는데 이 죽음은 우리의 영혼에 육체와 대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을 본문에서는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당합니다. 불신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신자도 죽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둘째 사망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사망 다음에 오는 것이 제육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인데 믿는 우리 성도들은 첫째 사망은 당하지만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또한 둘째 사망 곧 제육에 빠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서머나교회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제와 여러분에 다 되게끔 저에게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외부 농촌봉사활동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김 영 민
(대학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빛진 자된 대학부 30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 '꿈을 심는 이들'(꿈심어)이라는 이름으로 8월 8일 - 11일까지 남원에서 농촌봉사활동과 여름성경학교를 하였다.

5년 전부터 대학부의 한 작은 모임이 충북 음성에서 '생명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로 농활을 해오다가 지난해부터는 남원으로 농활을 갔었다.

지난해에 적절한 날씨로 다스리시며 우리가 일을 나갈 때에는 비가 멈추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비가 다시 내리고 또 우리가 일에 너무 힘들어할 때는 비가 내려 쉬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지리산을 등반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동안의 피로를 풀기도 했다.

또한 우리가 도와준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빨리 수확물을 출하하여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하여 우리의 농활활동 후에 그 교회에 성도가 배가되고 무속신앙이 뿌리깊은 이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신 4:6)라는 칭송을 들으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에벤에셀의 하나님(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이라는 고백을 하며 내 생애 가장 진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은혜를 기대하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올라오는 태풍 '더그'를 인하여 걱정을 하며 농활을 떠났다.

우리가 농활을 간 남원 성은교회 주변 마을은 교회가 세워진 지 3년밖에 되지 않는 무속신앙이 뿌리깊은, 복음이 척박한 땅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지역이고 또한 그곳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농사일로 바빠 돌보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이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으며 3박 4일동안 우리가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요 13:4-7)으로 서로 섬기며 농민들을 돕고 어린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심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조금이나마 농촌의 현실을 가슴으로 느끼며 이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였다.

둘째날에 여름성경학교와 농촌봉사활동을 하기 앞서 하루를 여는 기회를 가지면서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였다.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증거하며 수고와 기쁨(?)을 향유하였다.

우리가 간 곳은 지리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라 고령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 아예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절박한 농심(農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런 형편들을 보며 아주 작은 것들에 낙담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골로새서 3:15-17절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보며 기도예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거절하신 기도예 대해서도 감사하며 하루를 정리하였다.

셋째날,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태풍 '더그'로 인하여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정

은 계속 진행되었다. 비를 맞으며 마을을 청소하고 마을의 집을 수리하였다. 여름성경학교는 교회 주변 인근 4개 마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거리도 멀고 비도 억수같이 내렸기 때문에 교회 봉고차로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다. 필자가 봉고차를 몰며 아이들을 데리러 가 마을 어귀에서 클럭션으로 '뽕, 뽕' 하면 여기저기서 억수 같은 비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산도 없이 비를 흠뻑 맞으며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마 18:31)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어린 영혼들의 순수한 믿음이 많은 도전이 되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 일하려는 열정과 우리들의 넘치는 힘이 있음에도 농민들을 좀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런 형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심정으로 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같아 그것 또한 감사하였다.

수요일에 배 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셨는지 남원 성은교회 전도사님이 '찌는 폭염속에 그 어느 지방보다 가뭄이 심했던 남원 땅에 비로 물고온 사람들'이라고 격려해주었다.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특A급 태풍 '더그'를 C 태풍으로 낮추었다며 서로를 위로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추스리고 바로 세우며 마지막 땀을 흘렸고, 여름성경학교팀은 그동안 선생님과 아이들간에 사랑과 정을 새록새록 다져갔는

데 이번 성경학교엔 연인원 135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였다.

아직도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되길 기도하며,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조그마한 사랑과 정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해방과 자유,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리라 믿으며, 아쉬움을 뒤로하며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셋째날의 태풍 '더그' 등으로 인하여 좀 더 많이 도울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간적으로 많이 남는 이번 농활이었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설사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좋지 않은 환경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며 감사하였던 모습이 이번 농활에서 우리가 얻었던 큰 결실이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속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는다.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바라고 안주하는 영적 앓은뱅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Rise and Go, 행 3:3-6) 전투적인 신앙을 허락하신 것과 짧은 기간 우리의 미약한 힘이나마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단을 쌓게 하여 "나는 너희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렘 26:12)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심을 찬양한다.



찬양대원 합수련회를 다녀와서

"나의 삶을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자!"

최 영 옥
(할렐루야 평가대)

찬양대수련회라는 말을 접하고 나는 솔직히 많은 갈등을 느꼈다. '갈까 말까?' 이 많은 대원들이 호텔에서 먹고 각종 프로그램 갖는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렇지만 자기 전 날 밤 생각이 바뀌었다. 교회에서 갖는 단체 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불안하고 편치 않았는데, 누군가 남편을 통해서 등을 떠미는 것처럼 가야 한다고 야단이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느라 단

리를 치고 다음날 교회로 향했다

교우들과 함께 수련회에 도착했을 때 내 생각의 부족함을 알았다. 내 관심이 덜했는지, 아니면 흥분까지 되었는지, 호텔이 아니라 유스호스텔, 그곳은 청소년수련장이었다. 잠자는 것도 밥먹는 것도 기도원과 다를 것이 없었고, 도착하여 점심은 먹는데 점심먹기 전 요절을 외워야만 밥을 먹을수 있었다. 아마 집에서 밥 한 끼 먹기 위해 성구를 암송하는 사람은 한 새

람도 없을 것이다. 하루에 한 끼라도 가족들과 함께 요절을 외운다면 참으로 좋을 것이라 생각해 보았다.

개회예배를 드린 후 김철륜 교수의 '찬양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배웠다. 우리는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강의를 들었다. 특강이라기보다 부흥회 같았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양했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했던가,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준비를 했으며 정성을 다했는가, 아니면 취미생활하듯 하지는 아니했는가, 영이신 그 분께 드리는 찬양을 영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를 했는지 부끄럽다. 저녁먹고 은혜의 찬송시간에 이어 부흥회가 있었다.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언제나 들어도 은혜가 된다. 그 분은 참 찬양을 아시는 분이요,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찬양으로 교통을 하시는 것 같았다.

둘째날 신성종 목사님께서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영으로 부르고 찬양은 입술의 열매다"라는 말씀에 찬양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깨달았다. 또한 찬양대 부흥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약속하셨다. 부흥회 시간시간 연합찬양대의 찬양은 얼마나 뜨겁고 은혜스러웠는지, 둘째날 지휘자와 반주자의 특성에 있었는데 재창이 있었다. 아마도 예배시간에 재창받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너무도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에 경건의 시간, 찬양대별 장제자 람, 전승훈 집사의 레크레이션과 체육대회, 너무도 재미있었고 집을 떠나와 교우들과 생활한다는 것도 참 좋았다. 조령관문 등산 등은 모두가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무엇을 얻었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넓고 깊은 찬양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고 할까..... 가슴이 꽉 찬 느낌이다.

이번 수련회를 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신 현상민 목사님, 장로님과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을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자!"

토막소식

- ◆ 유치부는 9월 25일(주일)에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곡은 '예수께로 가면' 외 9곡이다.
- ◆ 초등1부는 오늘 어린이들의 헌신예배를 드린다. 어린이들의 바른 예배를 위하여 기도, 찬양, 특순찬양의 순으로 준비하고 있다. 9월 1일~9월 30일까지 추계대심방을 실시한다.
- ◆ 초등3부는 10월 9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할 친구를 찾고 기도중이다. 또한 오늘은 어린이헌신예배로 드리는 날이다.
- ◆ 초등4부에서는 오늘 예수사랑 큰잔치 교사기도회를 어린이헌신 예배 후 기도원에서 전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 예정이다. 어린이헌신예배도 드린다.
- ◆ 중등2부에서는 '시와 찬미의 밤'을 11월 19일에 하기로 결정하고 독창, 독주, 중창, 시화 등으로 참여할 사람을 찾고 있다.
- ◆ 청년1부는 다음주 9월 11일 정기총회일로 정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라고 있다.
- ◆ 새가정부는 10월 9일 예수사랑 큰잔치 준비에 한창이다. 신혼가정, 잃은 가

정(6주 이상 결석가정), 3년 미만 결혼가정을 초청하려고 한다.

- ◆ 사랑부는 오늘 6주년 기념예배 및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 ◆ 장년2부는 10월 23일 출애굽기 전장을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 ◆ 에바다부에서는 수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주일반과 평일반 두 과정이 있다.

주일반은 9월 11일(주일)~11월 27일까지이며 과정은 초급1반, 초급2반, 중급1반, 중급2반, 고급반으로 시간은 주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이다.

평일반은 9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이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며 과정은 초급·중급·고급이며 시간은 오후 7시부터 8시 40분까지이다.

9월 16일, 학습·세례식

9월 학습·세례식이 오는 16일(금) 오후 7시에 갈릴리홀에서 실시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및 개종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11일(주일)까지 교구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고 15일(목) 오후 7시에 실시하는 예비교육 및 학습·세례 문답식에 참석하여야 한다.

오늘부터 교구모임, 본당에서 연합으로 교구일꾼 교육 수요 1부 예배 후 구역장공부도

오늘부터 교구모임을 IV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연합으로 모인다. 이는 '94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교구일꾼 교육이 필요해서 이를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전 교구연합으로 교구일꾼 교육을 시키게 됐다.

또한 매주 수요일 1부 예배 후 구역예배인도자를 대상으로 갈릴리홀에서 구역예배 공과와 성경공부 인도법에 대한 강의를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실시한다.

예수사랑 큰잔치에서의 구역예배인도자와 교구일꾼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시하는 특별교육이므로 해

당자는 빠짐없이 참석해야 할 것이다.

제직사진첩 배포

충현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제직사진첩을 배부하고 있다. 교구 간사실에서 배부되는데 제직에 한하여 세대당 1부씩 해당되며 94년도 제직으로 임명 받았으나 본 교회 6개월 이상 장기 결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진을 찍진 않아 사진첩에 빠진 사람도 원하면 받을 수 있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 김창인 목사 : 5일(월) '95 회년대성회 주회 '여성지도자 성회' 개최선언 및 개회사(잠실 제1체육관)
- 신성종 목사 : 5일(월) 목회자세미나 개강예배 및 강의, 6일(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주회 국제지도자회의 초청 만찬 참석
2. 10월 11일~16일에 진행되는 '94 예수사랑 큰잔치가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발송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낙심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열매맺게 하소서.
3. 금요집회에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받고 큰 은혜받게 하소서.
4.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해주시고, 이 땅에 가득차 있는 죄악을 소멸시켜주시며, 김영삼 장로님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사 나라를 잘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5. 해외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여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새가족양육위원수련회 새가족양육위원 수련회가 지난 8월 29, 30일 양일간 갈릴리홀에서 모였다. 이번 수련회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양육위원 전원과 각 교구 교역자, 교구장, 교구 양육위원 등이 모여 앞으로 새신자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강의를 듣고 교구에서의 양육위원의 역할 등과 양육위원으로 사명과 책임감을 새롭게 갖는 계기가 됐다.

심어 생각하며

신앙과 인생유전

김 현 자

(집사: 제8교구 마포 망원 1구역장)

회갑(回甲)의 의미란 자신이 태어난 해가 다시 돌아옴을 일컫는 말이다. 회갑을 목전에 두고 나는 만감이 교차됨을 어쩔 수가 없다. 살아온 생을 다시 되짚어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신앙'과의 연관으로 지난날을 반추하게 되니 감사의 끝을 헤아릴 길이 없다.

일찍이 나는 학부시절에 하나님을 영접했으니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시절이 시절인지라 그때의 봉사는 지금과는 매우 양상이 달라 심훈 선생의 '상록수'에 비유하는 계몽적 의식에

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난과 무지몽매의 그들이 이 땅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으니 말해 뭇하라?

그러나 그러한 자긍심과 의지는 아쉽게도 길게 이어지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개 밑에서 안주하는 대신 넉넉지 않은 세상사와 싸우는 투사로 만드신 것이었다. 배우자를 잃고 삼남매의 어머니로서 살기 위해 나는 성경보다는 '세 치의 혀'와 '살벌한 가슴'에 의존하여 살아왔기에... 그것은 진정한 피눈물로 점철된 세월이었으며 나로 하여금 주님의 섭리를 원

망하게 하는 시간들로서 나는 실제로 주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심히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다. 내가 주님을 다시 찾았을 때 나는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였다. 세상사로 일룩진 내 영혼과 육신은 곧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던 탕자'와 다를 바가 없었기에 고열염과 관절염은 갖혀두고라도 급속한 우울증으로 정신병원까지 드나들어야 하는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인생의 황혼녘에서 이제는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지를 끌고 각기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는 자식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쓰라림이라니...

그것은 내가 이제껏 살아온 삶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또한 내가 추구해온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었다. 자녀들이 제 아무리 효심을 가졌다고 해도 어미의 걸어온 자취에 담긴 무수한 아픔들을 어찌 속속들이 알겠으며 이미 지친 내 영혼을 어찌 위로할단 말인가?

이러한 나의 한들을 진실로 송두리째 포용해주시는 여가 계셨으니 그 분이 바

로 주님이셨다. 그 분은 돌아온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으니 아무것도 책하지 아니하시고 참된 위안의 축복을 주셨다. 이제 나는 주님의 섭리를 비로써 깨닫고 있다. 세상 속에 버려진 채 홀로 비틀거리던 지난 날에도 그 분이 항상 나를 지켜 오셨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이던 순간들을, 그 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들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 헤쳐나올 수 있었겠는가?

내 의지라 믿고 나름대로 자만했던 부분들에 쓴 웃음을 먹음고 나는 홀로 위대하신 그 분께 찬양드릴 수밖에 없다.

'소망 하나가 남는다' 그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는 것이다. 돌고 돌아서 다시 찾은 내 신앙이기에 오히려 절실히 모자라 하나가 필요한 노인이 아니라 남은 내 삶을 통해 못다한 신앙의 뜻을 다하고 싶은 것이다. 주님이 자신 십자가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을 때에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감사하며 그 발치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